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항공우주 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항공우주산업은 21세기의 정보산업, 신소재산업 등 각 분야의 첨단산업을 주도해 나갈 미래 성장 유망산업이며, 다른 산업으로 기술과급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가적 VISION, 정책방향, 중장기개발전략 등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에 우리나라가 항공우주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항공우주산업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동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기 산업은 고정밀도·고신뢰성을 요구하는 항공기 부품을 저렴하게 생산하여 수출하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주요부품 생산경험 및 축적된 설계능력을 바탕으로 중소형항공기(30~100석급) 생산국가로 도약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투기, 헬기 등의 독자개발 능력확보로 자주국방 기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우주분야도 지속적 기술축적을 통해 2003년까지 독자적인 실용위성 개발능력을 확보하고, 2005년까지는 국내기술로 저궤도 소형위성 및 발사체를 독자 개발하여 2015년까지 아·태지역 우주산업 중심국가로 도약, 세계10위권내에 진입 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항공우주분야의 부품·소재개발 기반구축, 단일법인 설립 추진 등으로 효율적인 생산체제 확립,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제의 구축, 항공우주산업화를 위한 수요창출, 범 정부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올 상반기중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를 정례화, 항공우주 관련 정부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개발사업 및 육성지원시책별 세부추진방안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키로 하였다.

동 기본계획은 지난 97년 7월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 후 Workshop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 및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IMF 발생 등 제반여건의 변화를 감안,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이번에 확정되었다.

### 산자부, 항공우주산업과 수송기계산업과와 통합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안과 정부 직제 제-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직제 제-개정령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3실 13국 49과에서 2관 6과

가 감소한 3실 11국(관) 43과(팀)으로 직제 변경되었다. 항공우주산업과는 수송기계산업과와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자본재산업국은 산업기계과, 수송기계산업과, 기초소재산업과 등 3과로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소속기관도 1위원회 7소에서 국립기술표준원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관받아 1위원회 1원 7소로 개편하여 표준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 21C 항공기 부품개발 선진화 Workshop 개최

항공기 부품개발 선진화를 위한 Workshop이 지난 5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공동 주최, 산업자원부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개회식과 주제발표, 간담회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서 생산기술연구원 이종구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기술패권주의와 WTO체제하의 무한경쟁 경제 구조에 대비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도 항공기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밝히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상황에 발맞추어 흠어져서 중복투자를 하거나 서로 경쟁 대상으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산·학·연이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장래에 중대형 완제품 개발을 위한 항공기부품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우주협회 노정규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서 “지난 4월 22일 개최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

에서 확정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부품·소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논의중에 있으며, 협회에서도 항공기 국산화 및 지원정책 개발에 협회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주변사업개발에도 주력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Spoiler Actuator, Vital Parts, B717-200 날개 주요부품 국산화, Radome, F-4항공기 Nose Landing Gear Arm Assembly, 중형급 민항기 착륙장치 개발, 헬기용 감속기 및 꼬리 회전체 기어박스, 저압터빈, B717 날개부품 DFMA 적용설계 및 제작, 첨단 항공기용 복합재 날개, 중소형 항공기 미익구성품 개발, SB-427 헬기 동체용 복합재 구조물 성형기술, 기수부 문 대형외피, 비상 탈출구 보강재, 항공기 창, 항공기 부품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추진 전략 등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현재의 공기반 사업으로

는 항공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별도의 요령을 제정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수익성 실현을 위하여 국방부와 연계한 부품국산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년내 정부 예산확보를 위하여 수요 조사를 할 방침이므로 항공분야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꾸준히 제시할 것을 부탁하였다.



항공기 부품개발 선진화를 위한 Workshop이 개최되어 개회식과 주제발표, 간담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우리별3호 성공적으로 궤도 진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의 과학실험위성 우리별 3호가 지난 26일 오후 3시 22분(한국시간) 인도 PSLV로켓에 탑재되어 인도 남동부의 샤프발사장에서 발사된 후 원형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극위성 발사체인 PSLV로켓에는 인도의 해양관측위성과 독일의 과학실험위성이 함께 실려 발사된 우리별 3호는 자세제어에 들어가고 태양전지판을 편후 8월 중순부터 하루에 지구를 14바퀴 돌며 지

구관측과 실험활동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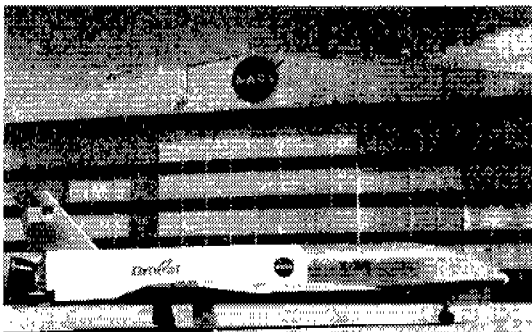
크기 604×495×852mm, 무게 110kg인 우리별 3호는 수명이 3년으로 자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전지판과 지상의 15m크기 물체까지 촬영할 수 있는 고체촬영소자(CCD) 카메라를 갖추고 있다.

우리별 3호 개발에는 지난 95년부터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약 80억원의 예산과 60여명의 연구인력이 투입됐으며,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주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와 현대전자, 삼성전자, 한라중공업 등이 참여했다.

### NASA, 음속 8배속 여객기 공개

미국 국립항공우주국(NASA)은 30일 캘리포니아주 드라이든 비행연구센터에서 고도 8만m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음속 8배 속도로 비행할수 있도록 설계된 X-34 1호기를 공개했다.

X-34는 재사용가능발사체(RLV)로서 인공위성용 궤도에 진입시키는 비용을 현재보다 1/2~1/3 수준



NASA는 최근 음속 8배속의 여객기를 공개하였다

인 약 50만달러로 낮출 수 있다. 날개길이 9m, 동체길이 19m, 높이 4m인 이 무인 우주기는 펄스트랙 단발 엔진으로 추진되며 최고 3.8톤의 화물을 실어날 수 있다. X-34는 고도 1만m에서 L-1011 수송기로부터 발사된 뒤엔 엔진 점화단계에 들어간다.

NASA의 요청으로 X-34를 만든 오비털 사이언스는 앞으로 수개월간 L-1011과 X-34의 안전성을 보이기 위해 수 차례 시험 비행을 실시할 것이며 X-34의 지구 귀환 시험 비행도 27차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X-34는 올 여름 첫 시험비행에서 마른 호수바닥 위에서 일반 비행기처럼 수평착륙을 하며 그 뒤 일반 활주로를 이용하게 된다. X-34의 첫 상업 비행은 오는 2004년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비털사는 두번째 X-34 로켓 비행기 제조 작업이 올해 완료되고 세번째는 2000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KF-16 20대 추가생산

정부가 KF-16 전투기를 최근 추가 생산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를 열고 국내 항공산업 육성과 항공산업 종사자들의 실업 방지를 위해 KF-16 전투기 20대를 추가 생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형전투기사업(KFP)이 종료되는 내년 4월부터 한국형고등훈련기(KTX-

2)가 양산되는 2005년까지 전투기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형전투기사업은 94년부터 내년까지 모두 120대의 KF-16을 직도입, 조립 및 기술도입 생산하는 것이며, FX사업은 그 후속사업으로 2000년대초 공군 주력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추가 생산에 필요한 1조2000억원의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해선 부처간 의견이 갈려 추가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기로 했다.

### 캐나다, 항공우주산업 세계 5위로 부상

98년 결산결과 캐나다 항공우주산업이 일본을 앞서 세계5위의 항공우주산업국가로 올라섰으며, 2000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4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98년 매출액은 153억C\$, 올해는 164억C\$, 2000년에는 180억C\$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매출액의 80%를 수출하고 있다. 현재 생산비율도 민수부분이 80%, 방산부분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항공우주산업 매출액의 절반을 봄바르디어, P&WC, 벨 캐나다, CAE에서 달성하고 있으며, 봄바르디어는 비즈니스와 지역항공기 분야, P&WC는 소형 터빈엔진, 벨은 헬기, CAE는 시뮬레이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성장은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책인 TPC(Technology Partnership Canada) 기술개발금융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TPC는 제품개발을 위해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올해 예산은 1.5억C\$이다.

WTO는 최근 TPC를 WTO보조금 협정위반이라고 판정하였으나 캐나다 정부는 수출과 직접 연계되는 몇가지 사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계속 유지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PC의 문제점은 전체예산 70%이상이 봄바르디어, CAE, P&WC에 집중되어 있으나, 캐나다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새로운 R&D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캐나다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액 현황

연도	억C\$
1993	87
1994	98
1995	107
1996	125
1997	134
1998	153(e)
1999	164(e)
2000	180(e)

97년도 산업현황

매출액	134억C\$
연구개발비	4억C\$
종업원	64,000명